

보도 일시	2022. 5. 3.(화) 10:00	배포 일시	2022. 5. 3.(화) 09:00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	책임자	과 장 김경립 (032-222-3001)
		담당자	사무관 남숙영 (032-222-3040)

2021년 책임운영기관 항공기상청 최우수기관 선정 - 항공기상분야 서비스 혁신 구현 성과 인정받아 -

- 항공기상청(청장 손승희)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「2021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」에서 최우수기관(S등급)에 선정되었다.
-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1년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한 이번 종합평가*에서 평가 대상 44개 기관 중 항공기상청 등 총 6개 기관이 S등급으로 선정되었다. 항공기상청은 2001년에 책임운영기관에 지정된 이후 최근 11년 만에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.
 - *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체계 : 고유사업평가(50%) + 관리역량평가(50%)
 - (고유사업 평가요소) 자체사업평가, 고객만족도 평가
 - (관리역량평가 평가요소) 기관장리더십, 사업계획의 적합성, 조직·인사·재정 관리의 적절성, 사회적 가치 구현, 서비스 혁신,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반영
- 항공기상청은 ‘국민의 안전한 하늘길을 여는 세계 일류 전문기관’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△ 예·특보 역량향상을 통한 신속한 위험기상 대응 △ 종합적 위험기상 감시로 항공안전 강화 △ 수요자 중심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항행 의사결정 지원 △ 효율적 책임행정체계 구현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.

- 지난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소형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저고도 상담관제를 최초로 시행하였으며, 저고도 항공기 전담 항공기상 정보를 지원하고, 또한 저고도 항공기 운항종사자가 직접 콘텐츠 개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랩(Policy lab)을 운영하여 저고도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저고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지원하며 서비스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.
- 특히, 대내외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차세대 항공기상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한 항공기상 최초의 연구개발(R&D) 예산('22년 17억원 (총 254억원/'22~'26년))과 연구인력을 확보한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.
- 손승희 항공기상청장은 “2021년은 항공기상청이 개청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의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진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되며 항공기상인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소명 의식을 느낍니다.” 라고 밝혔으며, “국가의 미래 항공교통체계 전환에 따라 차세대 항공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관역량 향상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일류 항공기상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” 라고 말했다.